

헌혈, 이유가 필요 없는 당연한 ————— 것

변상민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장 인터뷰

글 한송이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선임과장



헌혈,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공헌

벚꽃이 만개하던 지난 4월 말,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 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사무실을 방문했다. 27대 변상민 지회장은 이른 아침임에도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덕분에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변 지회장은 우리를 보자마자 지난주 진행했던 헌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우리 직원들 헌혈 많이 참여했나요?”, “어느 장소가 참여율이 가장 좋았나요?” 등의 질문에서 평소 변 지회장이 갖고 있는 헌혈에

66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야말로 헌혈을 꼭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고 모두 한 뜻으로 찬성했다.

99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헌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변 지회장은 “헌혈을 왜 해야 하나요? 글썄요. 헌혈은 당연



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요. 생활 속에서 헌혈만큼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의 헌혈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헌혈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야말로 헌혈을 꼭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고 모두 한 뜻으로 찬성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했다. 변 지회장은 조합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함성소식(노동조합 소식지)에 헌혈행사를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과거 헌혈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만나 헌혈을 당부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에게 참여 문자를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27대 화성지회의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아는 4차 산업을 위한 PBV(Purpose Built

Vehicle)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PBV란 목적 기반 자동차란 뜻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특화된 차량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변 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물류에 특화된 차량을 제작하는 PBV사업이 우리의 주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한마음혈액원의 혈액공급차량도 기아에서 제작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아-쿠팡의 제휴를 통해 특화된 물류 차량 제작의 첫 시작을 화성공장에서 시작하며 이것이 2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조합원들에게 헌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6일간 헌혈에 참여해 주신 620명의 조합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헌혈할 수 있게 애써준 한마음혈액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620명 조합원 동지들 모두 생명을 살린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에 남은 2번(6월, 10월 예정)의 헌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